



## 광주팬들 야구야~ 반갑다

광주에도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3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광주 첫 경기에 1만여명의 야구 팬들이 몰려 흥 개막전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KIA, 삼성과 흥 개막전...1만여 관중 찾아

광주에 야구의 봄이 찾아왔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흥 개막전을 갖고 홈팬들 앞에 첫 선을 보였다.

살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봄을 기다려왔던 1만여명의 야구팬은 경기장을 찾아 야구 열기를 만끽했다.

이날 경기에서 앞서 흥 개막을 축하하는 행사들도 진행됐다. 31사단 소속 군악대와 비보이 댄스팀의 공연에 이어 가수 박현빈의 축하 공연으로 막이 오른 개막전 분위기는 선수들의 입장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KIA 선수들은 입장 이벤트에 동참한 팬들과 함께 기자동차의 스포티지 R차량을 타고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중들의 환호

를 받았다.

경기장 밖에서는 기자동차 전시회와 바디 페인팅, 윤석민·로페즈·전태현의 사인회도 개최됐다. 한국시리즈 당시 KIA 응원석에 자리했던 호랑이 에드발론도 모습을 드러내 개막전 분위기를 달구었다.

애국가와 '야구 꿈나무' 서립초 야구부 학생들이 불렀다. 개그맨 이휘재는 시타를 광주출신의 텔런트 박솔미는 시구를 담당했다.

흥 개막전날 KIA에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지난해 '폴질남'대열에 합류한 내야수 이현군이 30일 새벽 0시 31분 건강한 아들을 얻으며 아버지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앞서 개그맨 이휘재(왼쪽)가 박솔미(오른쪽)의 시구를 헛스윙 한 뒤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이종범 인기 '짱'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인기구단엔 KIA 2위

KIA 이종범이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뽑혔다. 또 KIA 타이거즈는 프로야구 8개 구단 중 2위 인기구단으로 뽑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이종범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 3명까지 고르는 설문에서 12.0%의 표를 얻어 최고 인기선수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2위는 롯데 거포 이대호(9.3%), 3위는 '기록의 사나이' 삼성 양준혁(6.8%)이 각각 선정됐다.



구단별로 보면 KIA가 인기 선수 상위 10명 중 이종범, 최희섭(5위·4.9%), 김상현(7위·3.4%), 이용규(10위·1.8%) 4명이 뽑혀 가장 많았다.

인기 구단 설문에서는 KIA가 12.7%의 지지로 롯데(15.5%)에 이어 두번째로 인기가 많았다. 광주가 연고지인 KIA는 서울에서 16.0%의 표를 받아 서울 구단인 LG 트윈스(8.7%)의 배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다.

3위는 삼성 라이온즈(11.2%)가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황금사자 품은 '특급 좌완' 광주일고 유창식

## KIA엔 '그림의 떡'

KIA 타이거즈팬들이 '유창식 달레마'에 빠졌다.

광주일고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황금사자기 전국교교야구대회에서 에이스 유창식을 앞세워 1-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강호 장충고와의 승부전은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다.

특히 광주일고 마운드를 책임진 유창식은 대회 29일 무실점의 완벽 투구를 선보이며 야구팬들에게 화제의 인물이 됐다. 하지만 유창식의 호투가 이어질수록 KIA 팬들의 심정은 복잡해지고 있다. 전면드래프트 때문이다.

좌완 유창식은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와 종과 횡으로 떨어지는 두 가지 슬라이더를 구사하며 아마 최고 대어로 손꼽히는 선수. 배정받은 투구와 안정된 수비는 물론 타석에서도 수준급 실력을 발휘하며 메이저리그의 러브콜까지 받고 있다.

예년 같으면 KIA 팬들이 1차 지명감으로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어두었을 테지만 지난해부터 전면드래프트가 도입되면서 연고 선수에 대한 우선 지명권이 사라져 유창식은 KIA 팬들에게 '그림의 떡'이 됐다.

유창식이 메이저리그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국내 무대를 선택한다고 해도 KIA 영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면 드래프트에서는 성적역순으로 하위권팀이 순서대로 지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2010시즌 지명 1순위로 손꼽히는 유창식이 지난 시즌 챔피언 KIA 차례까지 올리는 만무하다.

전면 드래프트 도입따라 영입 불가

국내 활동맨 한화·LG서 '짬' 가능

광주일고의 황금사자기 결승이 열린 29일에도 KIA 관계자는 대회 현장을 찾지 않았다. 유창식이 사실상 '남의 자식'인데다 회장이 전국대학야구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우선적으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된 한화와 LG 관계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등이 자리를 지켰다.

유창식의 행보는 아직 미지수다.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유창식은 "메이저리그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미국행을 반대하고 있어 국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할 가능성도 높다. 유창식은 6살때 아버지를 여읜 탓에 홀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예뻐하다.

유창식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KIA 입장에서 속이 탄다. 눈앞에서 좌완 대어를 놓치게 된 조병현 감독도 "이런 제도는 너무 불합리하다. 어떻게 연고 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 거냐"면서 땅을 치고 있다.

일방적인 전면드래프트 도입에 희생양이 된 KIA 팬들의 애타는 시선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남아공월드컵 '태극전사' 16강 포상금은?

## 1인당 최대 1억7천만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의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태극전사들이 힘겨운 조별리그 관문을 통과하면 푸짐한 보상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0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출전하는 대표팀이 16강에 올랐을 때 1인당 최고 포상금을 1억7000만원을 주기로 의결했다.

지금 방식은 균등이 아닌 선수들의 출전 시간과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 지급'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공헌도에 관계없이 선수 한 명에게 3억원씩 줬고 16강 진출에 실패한 2006년 독일 대회에서는 네 등급으로 나눠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면 과제인 '사상 첫 원정 16강' 목표를 이룰 경우 팀 기여도가 높은 선수는 최대 1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에 해당하는 선수라도 9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대회가 끝나고 나서 지급 규모를 정했으나 이번에는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월드컵 종료 후 역수를 불러올 논란을 줄이려고 일찌감치 '당근책'을 내놨다.

지금 방식은 균등이 아닌 선수들의 출전 시간과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 지급'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공헌도에 관계없이 선수 한 명에게 3억원씩 줬고 16강 진출에 실패한 2006년 독일 대회에서는 네 등급으로 나눠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각각

/연합뉴스